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22. 4. 22.(금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	
담당 부서	항공보안과	담당자	과장 임월시, 사무관 이태진·조상원, 주무관 허백용 ☎ (044) 201-4237, 4233, 4235
보 도 일 시		2022년 4월 25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24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한-미 항공 수요 회복에 대비한 항공 보안 협력 강화 추진

- 4.21일부터 양일간 한-미 고위급 항공보안 협력회의 개최
- 양국 항공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, 인적교류, 합동평가 등 논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4.21(목)~22일(금)에 화상 회의로 진행된 “제10차 한-미 항공보안 협력회의”에서 미국 교통보안청*(TSA)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 수요 회복에 대비하여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.

* 교통보안청(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) :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조직으로 9·11('01년) 테러 이후 미국행 항공기 추가 보안검색 등 항공보안을 주도

□ 항공기·공항의 테러 방지를 위해 「폭발물·무기 등을 탐지하는 항공 보안장비에 대한 성능 인증*」에 대한 수준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공동의향서를 체결하였다.

* 우리나라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검증을 위해 '19년부터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를 도입해 시행 중

○ 이번 공동의향서 체결로 인증기관(항공안전기술원 등) 실무 위원회 구성, 인증시험 절차·방법 공유가 가능해져 인증 수준 개선과 함께 보안장비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- 앞으로 항공 수요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양국간 항공보안 현안을 조율하고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등 주요 협력 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간 직원 파견 정례화도 힘써나가기로 했다.
- 이를 위해 미국 교통보안청에 파견 중인 국토교통부 직원의 파견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, 미국 TSA 소속 직원도 준비 절차가 완료되면 연내 국토교통부로 파견할 계획이다.
- 또한, 협력 회의를 계기로 코로나로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웠던 주요 공항 합동 평가, 항공 보안체계 상호인정을 위한 우리나라 공항 현장 방문, 아태지역 항공 보안 협력 강화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.
-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“항공수요 회복에 앞서 양국 항공보안당국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고, 향후 이를 기반으로 미국행 승객 불편해소 및 중복규제 완화 등의 성과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이태진 사무관(☎ 044-201-4237 또는 4235, 협력회의 관련), 조상원 사무관(☎ 044-201-4233, 공동의향서 체결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공동의향서 체결(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)

